



지 평 의

사 회 적 가 치 경 영 과

지 속 가 능 성

‘사회적가치’라 함은 사회 구성 주체, 즉 정부·기업·시민사회·개개시민 등이 가치의 척도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두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맞은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양식을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찾는 것은 비약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만 차지하려 들지 말라’, ‘나누자’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마태복음 19장 24절)이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사회적가치’ 실현의 행동양식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사회적가치 경영’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영주체의 활동 모음입니다. 이번 ‘2019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평이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GRI Standards에 맞추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나름의 도전이지만, 사회적가치 경영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설피품 탓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해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다는 자각의 시간으로 보고서를 채웠습니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솔직하게 쓰려고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지평의 사회적가치 경영이 이후에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읽는 분들의 질정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볍게 등 두드려주며 격려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